

미래전략실 주간브리핑 (2017.7.3)



북극씨클 지역 포럼, 북극에서의 미국-러시아 협력방안 모색

- 북극씨클(Arctic Circle)과 미국의 싱크탱크 우드로 윌슨 센터(Woodrow Wilson Center)는 '북극에서의 미국과 러시아'라는 주제로 워싱턴에서 북극씨클 지역 포럼 개최(6.21~22)
- 북극에서의 과학연구, 국제협력, 지속가능한 개발, 북극항로 활용 등을 주제로 양국간 협력 방안 논의
- Georgy Karlov 러시아 하원 부의장은 북극에서의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'양국간 협력을 통한 북극 지역에서의 과학 이슈 해결이 최우선이고, 그 이후에 통신,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이 뒤따라야 한다'고 주장
- Lisa Murkowski 미 상원의원(알래스카)은 북극 지역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[\[관련기사\]](#)

시사점

- 북극 지역에서의 양국간 안보적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과학연구 분야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미-러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 확인



카타르의 외교적 단교에 따른 위기 확대

- 6월 5일, 사우디아라비아, 이집트, 바레인, 아랍에미리트(UAE)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8개국은 카타르가 이란의 적대 행위를 지원하고,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며 단교를 선언하고, 항공/해상/육로 통행을 금지
- 6월 22일, 사우디아라비아, 이집트, 바레인, 아랍에미리트(UAE)는 카타르에 13가지 요구 사항 전달
- 단교를 주도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수니파 아랍권 국가들의 요구사항에는 이란과의 모든 외교관계 종결, 카타르의 터키 군사기지 폐쇄, 수배 중인 테러리스트 인계 등을 포함
- 7월 1일까지 13가지 요구사항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걸프협력회의(GCC) 회원국에서 카타르 제명 선포
- 전문가들은 카타르가 최대 1년 동안 외교적 봉쇄를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
- 카타르는 세계 1위 천연가스(LNG) 수출국으로 전세계 LNG 수출량의 30% 담당
- 현재 유가는 1년만에 배럴당 40달러 가까이 치솟아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[\[관련기사\]](#)

시사점

- 현재 러시아 가스관사업 추진을 통해 에너지안보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카타르의 외교적 고립을 계기로 한-러 북극에너지 협력 사업이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 [\[관련기사\]](#)



러시아, 동 북극판에서 탄화수소 유전 발견

- 러시아의 로스네프트 사는 Laptev해에서 새로운 유전 발견
- 현재 로스네프트 사가 발견한 잠재적 지질 자원은 총 9.5 btoe이며, 전문가에 따르면 북극판에서의 석유 생산은 2050년까지 러시아의 총 석유 생산량의 20-30%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
- 2012년부터 북극판 개발에 대한 로스네프트 사의 투자는 약 1천억 루블에 이르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천5백억 루블까지 투자를 늘릴 계획 [\[관련기사\]](#)

시사점

- 러시아 북극판에서 석유 매장지가 처음으로 발견됨에 따라 북극자원 관련 타국가 간의 외교 판도 변화 예상



러시아, 노르웨이 내 미군 주둔 연장으로 러-노간 관계 악화 우려 언급

- 주 노르웨이 러시아 대사관 측은 로이터와의 인터뷰(6.24)에서 노르웨이 내 미 해병 주둔 연장이 양국간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경고
- 현재 노르웨이에는 330명 규모의 미 해병이 주둔하고 있으며, 기존 2017년까지 1년간 주둔하기로 한 계획을 2018년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
- 러시아 대사관측은 '미군 배치 연장은 북방 지역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 것'이라고 지적
- 이에 대해 노르웨이는 부대 체류 연장의 의미를 축소하며 미 해병 주둔이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(미 해병은 러시아 국경과 1,500km 떨어진 곳에 주둔) [\[관련기사\]](#)

시사점

- 러시아의 타국 국방 정책에 대한 이례적 언급으로 러시아와 미국 간 북극 지역에서의 군사·안보적 긴장이 확대되는 양상